

## 'www' 발명한 버너스 리 밀레니엄 기술상 수상

'월드와이드웹(www)의 아버지'로 불리는 팀 버너스 리(49)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지난달 15일(현지시각) 핀란드 정부가 제정한 '제1회 밀레니엄 기술상'을 수상했다. 버너스 리 교수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월드와이드웹을 발명한 공로로 이상을 수상한 것.

핀란드의 8개 공공·민간기관이 기금을 출연해 제정한 밀레니엄 기술상은 2년마다 사회 발전과 인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되며, 상금으로 1백만유로(약 14억원)가 지급된다.

핀란드 밀레니엄 기술상 수상자 선정위원회 페카 타르안네 위원장은 이날 헬싱키 핀란디아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월드와이드웹은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면서 '모든 사회에 투명성과 민주화를 촉진시켰고, 세계화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버너스 리 교수는 이날 '월드와이드웹이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영국 출신인 버너스 리 박사는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입자물리학연구소(CERN) 재직 당시 사람들이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표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월드와이드웹을 발명했으며, 웹은 1991년 처음으로 가동됐다.

## 일본 지재권 침해 제소업체 80%가 아시아 기업

일본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지적재산활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 국내 특허출원건수는 2002년 37만여건으로 연평균 3%씩 증가해 내년에는 42만2천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의 출원건수도 급증해 아시아지역에서 2002년 4만2천건이던 출원건수는 내년에는 5만3천건으로 늘어 미국 6만건, 유럽 8만1천건 등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1백3만6천2백건에 달하는 일본 국내특허권 소유수 가운데 자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허는 30%이고 다른 업체에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이 10%이다. 이에 반해 사용하고 있지 않은 휴면특허는 무려 6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2만7천건에 달하는 외국특허도 70% 이상이나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 침해로 일본업체가 외국업체로부터 제소를 당한 것은 65건으로 이중 41건이 미국업체로 나타났다. 또 일본업체가 해외업체를 제소한 것은 1백20건으로 이중 80%가 아시아지역 업체였다.

## 소니, 독일 발명가와 '워크맨 분쟁' 화해 합의

일본 전자업체 소니가 휴대용 녹음기 '워크맨'과 관련해 독일 발명가와 수십년간 끌어온 특허 분쟁을 거액을 주고 타결키로 합의했다고 독일 시사주간지 슈퍼겔이 보도했다.

슈퍼겔이 인터넷에 올린 바에 따르면 소니의 '워크맨'이 자신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온 안드레아스 파벨(59)씨에게 수백만 유로를 주고 법정 밖 화해키로 합의했다고 소니 측은 설명했다.

파벨 씨는 지난 1977년 녹음된 소리를 똑같이 복제하는 휴대용 소형 부품을 개발해 '스테레오 벨트'란 이름으로 특허를 냈다. 그로부터 2년 뒤 소니가 '워크맨'이란 상품명으로 처음 시장에 내놓은 소형 녹음기는 전 세계적으로 2억개 이상 팔리는 히트상품이 됐다.

파벨 씨는 '워크맨'이 '스테레오 벨트'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자신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으며, 지난 96년 영국 대법원은 휴대용 녹음기는 단순한 기술 개발의 결과라면서 소니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파벨 씨는 이탈리아와 캐나다에서도 다시 소송을 거는 등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소니 측도 강경한 자세였으나 소니의 공동창업자이자 자신이 '워크맨'을 발명했다고 자서전에서 주장한 바 있는 모리타 아키오 전 회장이 지난 1999년 사망한 이후 파벨 씨와 화해를 모색해왔다.

